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번호 4

이사야 40장

Jeff Pippenger

2023-10-23

봉인이 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는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밝히는 일을 포함하는데,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특히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 어떤 것의 시작이 그것의 끝을 나타낸다는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분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드러난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지목하신 측면이다.

이사야 40장은 예언적 서사의 시작을 알리며, 그 서사는 이사야서의 끝인 66장까지 이어진다. 이 서사는 보내심 받은 위로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 위로자의 오심은 모든 예언이 그러하듯 마지막 때에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 이사야와 예수가 위로자의 도래를 밝힌 것은 2020년 7월 18일에 일어난 14만 4천의 운동이 겪은 좌절을 가리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7, 8.

"죄, 의, 심판"은 보혜사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책망하다"로 번역된 그 단어에는 "확신시키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죄, 의, 심판"이라는 세 단계는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나타낸다. 그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셋째,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만물의 창조주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곧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나타낸다. 보혜사께서 낙담한 십사만 사천에게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그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온 세상에 확신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예루살렘에게 외쳐 이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을 받았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40:1-5.

이 본문은 마지막 엘리야 사자의 사역을 밝히고 있다. 그 사자는 윌리엄 밀러로 예표되었고, 그는 세레 요한으로 예표되었으며, 세레 요한은 엘리야로 예표되었고,

말라기는 그를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지목하였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에서, 주께서 지체하는 때에 실망하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실 때,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로 표상되는 그분 품성의 요소가 봉인이 풀려 드러나는 것이다. 처음 다섯 절의 서론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묻는다.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그 음성이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는 주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참으로 백성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6-8.

알파와 오메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메시지는 이슬람의 상징 속에 놓여 있다. 에스겔 37장에서 죽은 뼈들의 골짜기가 먼저 한데 모아지고, 이어서 네 바람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로 살아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은 속박을 풀고 온 땅을 휩쓸며 질주하려는 성난 말로 상징되며, 가는 길마다 파괴와 죽음을 싣고 지나간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둔감하고 냉랭하고 죽어 있어야 하겠는가? 아,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호흡이 불어넣어져, 그들이 두 발로 서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길이 좁고, 문이 좁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 너비에는 한계가 없다."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217.

성경 예언의 성난 말은 이슬람이다. 그 성난 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듯이, 파괴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되고 있다. 십사만 사천 명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제지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동쪽에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3.

네 바람이 붙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슬람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슬람은 일곱 나팔 중 마지막 세 나팔로, 또한 세 화로 상징된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 화,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 아직 불게 될 세 천사의 다른 나팔 소리들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8:13.

세 가지 화의 나팔을 소개한 뒤, 요한은 9장에서 이슬람의 특징을 밝힌다. 9장 4절에서는 이슬람에게 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는 무함마드 이후 첫 지도자 아부 바크르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9:4.

유라이어 스미스는 아부베크르와 4절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서기 632년에 그의 지휘권은 아부 바크르에게 넘어갔다. 그는 권위와 통치를 어느 정도 확립하자마자 아라비아의 여러 부족에게 통문을 보냈으며, 다음은 그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님의 전쟁을 치를 때에는 등을 돌리지 말고 사내답게 행동하라; 그러나 너희의 승리를 여자와 아이들의 피로 더럽히지 말라. 종려나무를 베지 말고, 곡식밭을 불태우지 말라. 과일나무를 베어 내지 말고, 가축에게 해를 가하지 말되 먹기 위해 잡는 것만 제외하라. 어떤 언약이나 약정을 맺거든 그것을 지키고 약속한 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수도원에 은거하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종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버려 두고,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수도원을 파괴하지 말라. 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정수리를 깎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두개골을 쪼개고, 그들이 무슬림이 되거나 조공을 바칠 때까지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라.'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500.

유라이어 스미스는 아부베크르가 로마와 전쟁을 벌이도록 보낸 이슬람 전사들이 구별해야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목한다. 한 부류는 일요일에 예배하는 가톨릭 수도사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일곱째 날에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이슬람은 오직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만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의 논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든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풀, 푸른 것들, 그리고 나무들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7장의 네 바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풀 위에 불지 못하도록 제지되었다.

14만 4천의 운동의 사자가 하나님께 묻는다. "내가 무엇이냐 외쳐야 하리이까?" 그에게 그의 기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이어야 하며, 그 기별은 풀 위에 부는 바람이라는 맥락 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이슬람에 관한 실패한 예언으로 인해 실망한 14만 4천에게 보혜사가 보내지고, 그 후 그들이 자신들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지체의 때에 있음을 깨달을 때, 보혜사는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의 역할에 관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 준다. 지체의 때의 역사 속에서 보혜사의 도래는 그들로 하여금 굳건히 서게 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매,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에스겔 2:1, 2.

그들은 부활하면 일어선다.

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요한계시록

11:9-11.

일어서는 것과 이어서 깃발처럼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라는 두 단계는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나타난다. 에스겔의 첫 번째 단계는 실망의 골짜기에 있는 죽은 마른 뼈들의 몸의 각 부분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에스겔의 두 번째 단계는 네 바람의 메시지, 곧 인치는 메시지이며, 곧 이슬람의 메시지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너희를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어,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각 뼈가 제자리에 맞더라. 내가 또 보니,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바람을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바람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방에서부터 와라, 오 생기여,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들로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3-10.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위로자가 오면 그들은 일어서고, 이어서 높은 산 위에 기치로 들려 올려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늦은 비, 곧 셋째 천사의 메시지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힘써 네 목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오시며 그의 팔로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의 상급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같이 그의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새끼 가진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누가 그의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되로 땅의 티끌을 헤아렸으며, 저울로 산들을, 저울대에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깨우쳐 판단의 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며 명철의 길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민족들은 두레박의 한 방울 같고, 저울판의 가는 티끌처럼 여겨지나니, 보라, 그가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도 사를 땀감으로는 족하지 못하고, 그 짐승들도 번제에 족하지 못하도다. 그의 앞에서 모든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 허무로 여기신다. 이사야 40:9-17.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기치처럼 높여지며,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진다. 그 높은 산은 곧 기치이며, 그것은 2020년 7월 18일의 첫 실망으로 시작된 지체의 때 동안 주를 기다리던 자들을 상징한다.

한 사람의 꾸짖음에 천 명이 도망하며, 다섯 사람의 꾸짖음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어 기다리시며, 또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니,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17, 18.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깃발이 하늘로 올려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들에게 이르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보았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으며, 그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계시록 11:12, 13.

요한계시록 11장은 지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각에 두 증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밝힌다. 과거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성취된 그 지진은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이 전복되는 일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그 기치는 일요일 법령 때 들어 올려지고, 이어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땅에 사는 자들아, 그가 산 위에 깃발을 들면 보라. 그가 나팔을 불면 들으라. 이사야 18:3.

나팔이 불릴 때 그 깃발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메시지는 일곱째 나팔이며, 그것은 셋째 화이고, 그것은 이슬람교다. 이사야, 요한, 에스겔은 모두 말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서로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이 주일법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품성에 한 점의 흠이나 얼룩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치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비가 우리 위에 내릴 것이다. . . .

“형제들이여, 위대한 준비의 사업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속적인 틀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들은 하늘의 틀을 받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칙령이 공포되고 인침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이 없을 것이다.” 증언, 제5권, 214-216쪽.

비록 그 칙령이 일요일 법령에서 강제되겠지만, 인침을 받을 자들은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이미 그 인을 받기에 준비된 품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일요일 법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위기가 지향해 온 바로 그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한밤중의 '위기', 또는 '외침'이다.

품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가라' 하는 간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을 때, 잠자던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 누가 그 일을 위해 준비해 두었는지가 드러났다. 두 무리 모두 예상치 못했으나, 한쪽은 위급한 순간을 대비했으며 다른 한쪽은 준비가 없었다. 품성은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위급한

순간은 품성의 진가를 드러낸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상실, 위기, 뜻밖의 병이나 고통, 영혼을 죽음과 맞대게 하는 어떤 일들이 품성의 참된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영혼이 은혜로 붙들려 있는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시련의 때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의 등불은 꺼져 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켜 두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의 연합으로 우리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되어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자기들의 품성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각자가 형성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895년 10월 17일.

슬기로운 처녀들은 외침이 있기 전에 기름이 필요했다. 한밤중의 위기가 닥치면 기름을 얻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이다.

"절망과 전쟁과 유혈의 영이 있으며, 그 영은 때의 아주 마지막까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자마자—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 안에 굳게 자리잡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맞을 준비가 되는 즉시, 그것이 올 것이다. 실로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땅 위에 임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우리가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권, 249쪽.

하나님의 인은 진리 안에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굳게 자리 잡는 것이다. 그 인은 볼 수 없지만, 기치는 보일 것이다. 그것만이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인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로 짓밟는 자들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을 송고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만 경고를 받는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과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계속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바꾸려 했던 죄의 사람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성경훈련학교, 1903년 12월 1일.

일요일 법령 이전에 받아야 할 인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천사들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일요일 법령 때에 보이는 인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 곧 표징이기 때문이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31:13.

14만 4천의 인침은 2020년 7월 18일에 시작되었으며, 일요일 법령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땅에 사는 자들아, 그가 산 위에 깃발을 들면 보라. 그가 나팔을 불면 들으라. 이사야 18:3.

이제 봉인이 풀린 일곱 우리는 14만 4천의 역사가 셋째 화의 나팔 경고의 맥락 속에 놓인 기별을 선포하는 사역임을 밝힌다.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의 나팔은 무덤에서 들어 올려진 기치에 의해 올려 퍼진다.

모든 개혁선의 네 가지 이정표는 1840년부터 1844년의 역사 속 네 가지 이정표와 일치하여, 각 개혁선의 네 단계가 언제나 동일한 주제를 지님을 확증한다. 1840년부터 1844년으로 표상된 14만 4천의 역사에서 첫 번째 이정표는 2001년 9월 11일의 기별 권능이었다. 그 이정표는 이슬람이었다. 14만 4천을 위한 병행 역사에서 두 번째 이정표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이었다. 그 이정표는 시간의 적용으로 인해 왜곡된 이슬람에 대한 예측이었다. 한밤중의 외침을 표시하는 세 번째 이정표는 실패한 이슬람 예측의 수정이다. 그 수정은 시간 적용의 거절을 의미한다. 네 번째 이정표는 일요일 법령으로, 들어 올려지는 기치가 일곱째 나팔을 분다. 그 나팔은 셋째 화, 곧 이슬람이다.

이사야 40장은 이어지는 스물여섯 장의 출발점을 지목한다. 그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괴롭히던 두 예언자가 다시 살아나는 때이다. 보혜사께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일으켜 세우신 뒤, 그들은 하늘로 올려진다. 이사야는 엘리야의 사자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규정한다. 그 전령은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고, 예언적 상징으로 알려주기를, 이슬람의 메시지는 기치가 선포하는 나팔 경고라고 한다. 그러나 말세에 이슬람을 경고의 나팔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이슬람을 식별하는 것이다. 밀러파가 이해한 이슬람의 시작과 하박국의 두 거룩한 도표에 도해된 내용을 사용하여,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을 식별해야 한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10.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14만 4천을 대표한다. 요한의 뒤에서 들린, 즉 과거의 나팔 소리를 나타내는 그 음성은, 나팔들이 일요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척자들의 이해를 가리킨다. 첫 네 나팔은 321년에 콘스탄틴이 제정한 최초의 일요일 법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교 로마를 향해 내려졌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곧 첫째와 둘째 화는, 교황권 로마가 538년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역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한 이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이슬람의 셋째 화가 도래한다. 그때 깃발이 들려 올라가고, 이슬람의 시작 당시 역할을 근거로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이 밝혀진다.

기치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알파와 오메가의 맥락 속에 놓일 때에만 확립될 수 있다. 이사야 40장의 이러한 서론 이후,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인 성경적 제시가 여러 연속된 장들에 걸쳐 펼쳐진다. 그 장들은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으로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표로 보이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또 그것을 "일곱 교회에 보냈다."

다음 글에서는 이사야서의 다음 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예언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